

환우가족들에게 따뜻한 자비 손길을

화순 유마사 보안회, 병원서 불교상담활동 진행

전남 화순에 위치한 전남대병원 안 암 환자들 비롯한 중증질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찾는 곳이다. 이 병원 지하 1층에는 불심으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곳이 있다. 바로 불교관이다.

호남지역 국립병원 내 위치한 유일한 불교시설이자 법당인 불교관은 2007년 어렵게 만들어졌다. 그 불교관을 만든 이가 바로 화순 유마사 주지 일장 스님이다.

일장 스님과 유마사 병원봉사부자 모임인 보안회(회장 천화심)는 4월 24일 불교잡지와 신문을 환자들에게 돌리며 상담활동 등을 진행했다. 이날 이들은 수술 등으로 절에 갈 수 없는 불자환자들에게 병원 내 신행활동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불자가 아닌 환자들에게도 단주를 건네며 쾌차를 기원했다. 이들은 매일 병동을 순회하며 환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보안회 회원들은 매일 당직을 정해 24시간 법당을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그 누구나 종교를 불문하고 법당에서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아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일장 스님과 보안회는 명절과 부처님오신날 등에는 전체 환자 800여 명에

게 떡과 작은 선물을 전하는 한편, 형편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아픈이들의 마음 속 이야기를 들은지 7년. 그 터전이 됐던 불교관이 병원측의 배려로 올해 1월 새롭게 확장됐다. 그동안 불교관은 기독교관에 비해 협소하고 외벽 소리가 울려 퍼져 예불을 올리는데 한계가

환자 및 가족 신행상담 인기

불자 아니어도 따뜻이 반겨줘

24시간 열린법당, 1월 확장해 오픈

있었다.

그동안 법당 운영과 환자 지원 기금은 50여 정기후원자들과 15명의 보안회 회원들이 맡았다. 이들의 노력을 들은 불교계에서 도움의 손을 뻗으며 증개축이 진행되게 됐다. 2011년 범능 스님과 화순 만연사에서 1000만원을 전달했으며 송광사 방장 스님도 사비를 털어 기금을 전달했다.

불교계의 관심에 병원 측은 불교, 천주교, 기독교 종교관 보수를 결정하며 공간을 공평하게 배분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롭



화순 전남대병원 불교관에서 자원봉사에 앞서 담소를 나누는 일장 스님과 보안회 회원들.

게 단장되는 불교관은 환자들의 다양한 기도와 신행상담이 이뤄지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

일장 스님은 “대부분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 이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다”며 “그들의 힘들었던 인생사를 들으면 저절로 돕고 싶은 마음이 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이들 중 불교계의 보살핌이 없어 평생 불교를 만나지 못했던 임종을 앞두고 개종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움을 느껴 병원 봉사를 시작했다”며 “불교계가

어려운 이들을 보살피는데 더욱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아버님을 간병하다 스님을 따라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감리회 회원은 “시아버님이 폐암으로 고생하실 때 스님의 따뜻한 말과 기도 덕분에 온 가족이 몸 뿐만 아니라 마음이 고통을 덜었다”며 “그 덕에 아직 시아버님이 살아계신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다른 환우들에게도 전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 봉축 기원등 점등식 봉행



점등식에 참가한 각종단 대표들이 점등 스위치를 누르며 축원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뜻을 바로 알고 세계평화와 민족의 화합, 국민대안을 기원하는 부처님 오신날 봉축 기원등 점등식이 4월 21일 전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이 날 점등식에는 전북봉축위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도광 스님, 보문종, 용화종, 진각종, 천태종 등 각 종단을 대표스님들과 김완주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주시장, 포교신행단체장등 사부대중 5000여명이 참석했다.

점등식은 불교연합 합창단의 축하를 시작으로 삼귀의, 반야심경, 찬불가, 선언문 낭독, 점등, 축원, 봉축 불꽃놀이 순으로 진행됐다.

봉축위 부위원장 도광 스님은 대회를 통해 “세계 인류 평화와 7000만 민족의 화합을 염원한다. 이날 밝히는 기원등이 무명을 밝히고 불안과 공포를 없애주는 지혜와 자비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축원

했다. 봉축위원장 원행 스님은 범어를 통해 “봉축위원들의 의미는 배품과 나눔, 화합과 소통을 실천하며, 불자로서 이해하고 관용해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라며 “지역분쟁, 세대·계층간 분별, 전쟁과 테러,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이 성취되고 지혜를 체득하는 부처님 오신날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이라는 주제로 한달 간 진행될 전북지역 봉축행사는 대규모 연등축제를 비롯해 군부대, 교도소,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나눔, 어린이 청소년과 노인을 위한 특별행사 등 다양한 봉축행사가 열린다.

한편, 지역 스님들과 김완주 도지사등 지역기관장, 불교 지도자들은 기원등 점등식에 앞서 불교와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어르신에게 행복의 밥상을 드려요”

자비신행회, 지역사회와 연합해 어르신 식당 운영

오전 10시, 광주 동구 장동교차로에 위치한 어르신식당에는 지역의 어른들이 의자에 앉아 문이 열리기를 기다린다.

“오늘 멋쟁이가 되셨네요. 맛있게 점심 드세요.”

잠시 후 11시 문이 열리면 윤희경 팀장의 반가운 맞이 인사와 함께 하루의 만찬이 시작된다.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매일 70여명의 어르신에게 점심을 제공한다. 많은 인원에겐 음식을 제공할 자원과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인원은 회원제로 한정돼 있다. 개별 면담을 통해 장애인, 독거노인을 우선으로 선정해 음식을 대접하고 있다.

어르신식당 자원봉사는 대부분 증심사와 문봉정사, 영광사 등 사찰신도들이 맡고 있다.

4월 25일 점심에는 매주 목요일 봉사를 맡고 있는 증심사 주지 연광 스님과 증심사 신도 10여 명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여기에 노회용 동구청장과 동구청공무원



노회용 광주 동구청장(사진 왼쪽)과 증심사 주지 연광 스님이 어르신들에게 배식봉사를 하고 있다.

불자회(회장 김재홍) 회원들도 힘을 보탰다. 본격적인 배식 시간이 됐지만 배식순서표가 배분돼 혼잡하지 않았다.

이날 어르신식당에서 봉사활동을 한 노회용 동구청장은 “이곳이 동구에서 가장 맛있는 점심을 드리는 곳”이라며 “따뜻한 밥이지만 모두들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르신식당을 담당하는 윤희경 팀장은 “매일 식사 외에도 매일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미용봉사, 생일을 맞이한 어

르신들 잔치, 국악공연이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순희 할머니(72)는 “이곳만큼 맛있는 곳은 없다”며 “늘 다양한 반찬과 봉사자들의 정성이 음식에 담겨있어 편안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자비신행회는 지난 4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와 7시 힐링아카데미와 불광출판사와 공동으로 ‘제2기 빛고을 불광 MY리더스클럽’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도영 스님, 고향어르신 경로잔치 개최

완주 송광사 회주 도영 스님(前조계종 포교위원장)이 남몰래 수년째 고향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잔치를 연 사실이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도영 스님은 4월 25일 전북 부안 목원예식장에서 주관한 지역 어르신 300여명을 초청해 경로 위안 잔치를 열었다.

경로잔치는 품바 명인공연, 한마음 예술단의 민요, 노스텔지어의 통기타 공연으로 흥겨운 하루를 지냈다.

도영 스님이 고향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잔치를 열고 있는 사실은 주변에서도 모를 정도로 조용히 추진돼 가까운 지인을 제외하고는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도영 스님은 경로잔치 인사말에서 “좀더 크고 좋은 곳에서 어르신들을 모실수도 있지만 어르신들 식사가 마땅치 않아 따뜻한 공양을 대접하고 싶어 예식장으로 장소를 정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스님은 또 “어르신들이 즐거워하고 옛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공연을 준비했다”며 “건강하고 행복한 여생을 즐기시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청소년 문화잔치 ‘동백연’ 열어

학생·학부모 1500명 참석, 전통문화 체험해

청소년들에게 효행과 애환심,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예비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한 ‘제37회 동백연 청소년 문화예술 경연대회’가 4월 26일 고창 선운사(주지 범만)에서 열렸다.

선운사와 고향문화원이 공동주최한 ‘동백연’은 유치부 어린이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과 학부모 1500여명이 참여해 문화예술 경연과 민속경연 등을 통해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동백연은 선운사 동백나무 숲 앞에서의 동백제례에 이어 백일장, 미술, 만담설화, 타악 경연, 무용, 판소리, 시조경창 등 문화예술 행사와 제기차기, 투호, 김줄넘기, 팽이치기, 굴렁쇠 굴리기, 학부모 윷놀이, 등의 민속부문, 탁본, 향토문화알기, 도예(자기 만들기), 전통매듭 만들기, 호패 만들기, 가훈쓰기 등 체험행사가 펼쳐졌다.

선운사 주지 범만 스님은 개막식에서 “선운사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함께 미



모형 동백꽃을 만드는 아이들의 모습.

당 서정주 시인을 비롯한 많은 문화 예술인들이 탄생하는 등 시문학과 판소리의 배경이 되기도 한 곳”이라며 “1500년의 역사를 지닌 선운사에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로 37회째를 맞이한 동백연 청소년 문화예술경연대회는 조선 성종 14년 행호 선사가 조성한 선운사 동백꽃을 시원으로 창설됐다. 이후 전북 대표 향토문화예술제로 자리잡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불교신문 · 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안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안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안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안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안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만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안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안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안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설 봉사도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 출가의식 지원
신부는 미안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안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피아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안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서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안마 문화원을 통해 미안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상명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미안마연방정부 추대 미안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안마문화원